

200자 안내

기획서 사전

韓致奎 지음

건축물에는 설계도면이 있듯 업무에는 반드시 업무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다. 이 책은 업무에 필수적인 기획에 따르는 창의력 발휘, 브레인 스토밍의 실효, 정보수집 등의 방법과 기획력의 원칙으로서 창조성·논리성·현실성 등을 설명하고 구체적인 기획서 작성요령과 마케팅요령, 기획입안에서 실시까지의 과정을 풀이했다. 기획서 목차를 10가지 사례별로 나눠 소개해 실제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의 특징. 신세대 / A5신 / 276면 / 6000원

말하라 사랑이 어디서 왔는가

노수빈 지음

「현대시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한 시인이 그동안 써놓았던 수필을 모아 묶어낸 첫 수필집. 모두 5부로 나누어 66편의 작품을 실었는데, 1부에는 사랑과 행복·죽음을 주제로 한 글을 모았으며, 2부에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3부에서는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을 추억하고 있다. 특히 4부 '죽음에 이르는 병'과 5부 '시와의 산책'에서는 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한 시인의 애정어린 눈길이 드러나 있다.

미래문화사 / A5신 / 302면 / 4000원

시간사냥

빌 코스비 지음 / 안유희 옮김

미국의 인기 코메디언이며 '아버지의 시대'란 책을 펴내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명성을 얻은 저자가 '노화'라는 주제로 다섯살부터 오십을 넘는 중년까지의 이야기를 다룬 책. 인간으로서 어쩔수없이 겪게 되는 노화를 학문적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생활 속에 숨은 위트와 유머로 풀어낸 이 책에서 특유의 재치와 익살을 맘껏 펼쳐보이는 저자는 노인문제 전문가로 교육학과 심리학 박사이기도 하다.

깊은샘 / A5신 / 220면 / 3500원

우리들 슬픈 사랑의 그림자

이정하 외 지음

'대학가 연애평속도'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13명의 작가지망생들이 대학생들의 연애를 풍트식으로 쓴 글들을 한데 모은 것으로, 변천되기는 젊은이들의 사랑법을 보여준다. 대학가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연애행태를 통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순수하고 아름다운 젊음을 엿보게 하는데, 오늘의 젊은이들이 품고 있는 열정과 흔들리는 가치관 뿐 아니라 이 시대의 대학문화를 짐작케 하는 이야기들로 묶여져 있다.

햇살 / A5신 / 264면 / 3800원

잃어버린 시간에 대한 잿빛기억

이도행 지음

69년 「강원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뒤 한 동안 공백기를 갖던 작가가 최근에 쓴 장편소설. 청년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옮긴 자전적인 소설로서 춘천교대에 다니던 주인공 이강욱이 학업을 중단하고 군입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 작품은 군대생활과 그 속의 뿌리 깊은 비리를 파헤치고 있는데 소피아라는 여인과의 애뜻한 사랑이야기가 전편을 통해 감미롭게 전해지기도 한다.

정암문화사 / A5신 / 300면 / 4000원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아다 흘스 지음 / 서원모 옮김

신앙과 이성에 관한 소고이면서 인간의 지적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에게 두자고 호소한다. 제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진리의 개념으로, 5장에서 7장까지는 진리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성의 문제를 다룬 이 책에서 저자는 해설적 방법을 채택해 각 사항을 증명하고 반박을 대비하는 방식이 아닌 일관적인 견해를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크리스찬다이제스트 / A5신 / 170면 / 2500원

가슴에 키우는 별2

김문수 지음

「미로학습」「만취당기」등 서민들의 애잔한 삶의 잔영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왔던 중견 소설가인 작가가 30여년의 문단생활을 정리한 첫 에세이집. 그동안 신문이나 잡지에 연재했던 칼럼과 에세이 60여편을 싣고 있는데, 전편에 흐르는 "화장기라고는 전혀없는 민낯 같은 글일지라도 우리가 사람답게 살자는 뜻만은 잊지 않고 쓴 글"들은 미문과 현학이 난무하는 시대에 진솔한 산문의 정수로서 훈훈한 감동을 선사한다.

담계 / A5신 / 344면 / 4000원

잃어버린 영혼

임수경 외 지음

80년대 초부터 최근 10여년 동안 전국의 대학신문이나 교지의 현상문예에 당선된 소설작

품들의 모음. '통일의 꽃'으로 불리는 임수경 씨가 평양행을 하기 전인 재학시절에 써서 외 대학보사 신문문학상을 수상한 표제작 「잃어버린 영혼」을 비롯해 83년 고대문학상 당선작 「숨은 그림찾기」(박철우), 89년 경북대 복현문학상 당선작 「시인과 선인장」(이상마) 등 모두 15명의 소설이 실려 있다. 대학생다운 풋풋한 사랑과 갈등, 그 세대 특유의 절박한 외침, 회의와 고뇌 등을 통해 80년대 젊은이들의 풍경화를 보는 듯하다.

유월 / A5신 / 354면 / 4000원

한글 동경대전

김기선 엮음

한글가사인 「용담유사」와 더불어 동학의 기본경전인 「동경대전」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수운 최재우 선생에 의해 창도된 민족종교인 동학의 경서를 모두 모아서 엮은 「동경대전」은 동학을 올바르게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필독의 입문서임에도 불구하고 한문으로 되어 있고 그 음이나 토가 없어 일반인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 책은 동경대전 전문의 원문을 수록하고 그에 따른 해설을 덧붙이고 있어 동학의 참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동학연구원 / A5신 / 406면 / 7500원

섬이 고독한 이유는

함림 엮음

시적인 명상과 묘사, 풍부한 서정으로 가득 찬 자유로운 문장으로 국내 독자들에게도 친근한 장 그르니에의 대표 산문選. 「유년시대」 「삶에 관한 아포리즘」 「길 위의 나그네」 등 모두 3부로 구성. 작가가 삶에 대한 성찰을 얻게 되는 심리적 배경을 밝힌 글들과 인간의 일상사에 대한 작가의 독특한 사유의 세계를 맛볼 수 있게 한다.

동인기획 / A5신 / 348면 / 4500원

거지왕 김춘삼 1, 2, 3

김춘삼 지음

나름의 '거지철학'을 바탕으로 거지들의 자력생애를 위한 각종 사회사업에 일생을 바쳐온 거지왕 김춘삼의 자전적 일대기. 그의 구술을 부인이 정리한 이 책은 해방 이후로부터 5·16 그리고 최근에 이르기까지 현대사의 격랑 속에서 거지라는 극한상황에 내몰리어 살면서도 풍요로운 마음과 사랑을 잃지 않고 살아왔던 거지왕의 파란만장한 삶을 진솔하게 그리고 있다.

열림원 / A5신 / 각 296면 내외 / 각 4000원

모계르 마을의 시요일

후안 라몬 히메네스 지음 / 김은정 옮김

195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시인

의 산문시집. 「시인이 된 당나귀와 당나귀가 된 시인이 나는 영혼의 대화」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집은 시인의 작은 당나귀 「쁘라페로」의 눈과 영혼을 통해 스페인 안달루시아 지방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가난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꿈과 사랑과 애수를 노래하고 있다. 인간과 신과 자연의 조화로운 만남과 삶의 약동이 자유롭고 풍부한 감성의 문체로 그려져 있다.

국일문학사 / A5신 / 208면 / 3500원

여자는 왜 여자답게 말해야 하는가

로빈 레이콕 외 지음 / 김주현 옮김

로빈 레이콕, 준 소첸, 안느 마리 우드빈 등 3명의 여성학자들이 쓴 글을 모은 책. 언어는 단지 의사교환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사회적 차별과 성차별의 지표이며 모든 차별을 지속시키고 강화시키는 사회구조의 한 방편이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 언어 속에서 발견되는 남녀차별의 무수한 증거들을 밝히는 한편, 남녀의 연대를 통한 언어와 사회의 변화가 함께 진행될 때 여성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고려원 / A5신 / 208면 / 3500원

재미있는 레크리에이션

박우성 지음

우리나라 레크리에이션계의 권위자인 저자가 20년의 실제경험을 토대로 저술한 레크리에이션 소개서. 조직원들의 침묵도모와 사기양상을 위해, 또는 스트레스해소 정리함양 등 삶을 보다 즐겁게 영위하기 위해, 그리고 레크리에이션 연수담당자들의 지도용교본 등 다양한 목적에 부응하는 갖가지의 게임들을 총망라, 방법과 규칙을 소개했다. 부록에 민속놀이, 한 마당체조, 퀴즈, 게임송 등을 첨가 게임백과로 활용되게끔 했다.

한국산업훈련연구소 / A5신 / 214면 / 3500원

코코 샤넬

폴 모랑 지음 / 고영일 옮김

샤넬 넘버 5. 향수로 유명한 프랑스의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의 전기. 「간결하고 감축이 좋으며 낭비가 없을 것」이라는 원칙으로 디자인의 기초를 삼았던 샤넬은 고아 출신으로 불우한 가정환경을 딛고 일어선 '혁명적 디자이너'로서, 동시대 못 남성들을 매료시킨 개성있는 여성으로서 지금까지도 세인의 주목을 끌고 있다. 굴곡 많은 그녀의 생을 작가는, 진취적 여성상의 진지한 모습으로 담아내고 있다.

대륙 / A5 / 264면 / 4000원

만나는 것들마다 사랑이더라

서익수 지음



일러스트에 사용된 사진은 표지디자인한 책의 일부입니다.

요즘 출판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출판대국이 되었다.”

출판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책 잘 안읽는다.”

책을 쓰시는 분이나 출판업자가 사회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 이유는 거론할 필요조차 없이 책의 중요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민 1인당 독서량이 3권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책을 많이 만드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책을 잘 읽지 않는다니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작은투자 한가지

0.6cm 투자

하루도 예외없이 잡지나 일간지 하단에 뻑뻑히 실려있는 출판광고 지면에서 0.6cm의 공간만이라도 투자 하십시오. 5단 5cm 광고라도 0.6cm의 공간이면 독서권장 문구 한줄 정도는 넉넉히 넣을 수 있습니다.

Communication Service Club



씨·에스·씨

필드에서 노하우를

축적한 전문 북디자이너들이 씨·에스·씨에서 만나 광고기획부, 프로모션/인테리어부에 이어 출판기획부를 새롭게 구성하였습니다. 항상 연구하는 자세로 보다 나은 책 한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씨·에스·씨 출판기획부는

표지디자인·본문디자인·출판광고디자인·일러스트·기타인쇄물디자인을 기획, 제작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삼청동 127-2호 TEL: 722-6352, 723-6826 FAX: 723-6826

‘교육’의 길만 줄곧 걸어온 저자(마산 여상 교장)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학생들이나 교육을 걱정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70여편의 글을 모았다. 1부엔 일간지 등에 연재했던 칼럼을, 2, 3부엔 86년부터 87년까지 2년간 아침방송에 나갔던 방송원고를 묶었고 4, 5부는 주로 학생들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사랑·자아·성실·인간성 등의 가치에 관한 글들을 모았다.

자유사상사 / A5신 / 240면 / 3800원

태양계

유경희 지음

지구가 속해 있는 천체계로서의 태양계에 대한 새로운 과학법칙 해석을 만화로 꾸며 천문학의 기초지식을 알기쉽게 풀이한 책. 천동설이 지배하던 시대에서 지동설이 확립되고 오늘날에 이르러 직접 행성에 우주선을 보내 탐사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태양계의 비밀이 벗겨지는 과정과 태양계 생성과정 그리고 태양계 안에 있는 9개 행성의 특징을 비교행성학적으로 다루고 있다.

동아출판사 / B5변형 / 128면 / 3000원

아시모프의 지구과학 화학

아시모프 지음 / 안희수, 박택규 옮김

미국의 저명한 과학저술가인 저자가 우주공간에 떠 있는 지구의 구성물질에 대한 인류의 탐구과정과 결과를 재미있고 설득력 있게 소개한 책이다. 유일하게 생명체가 존재하는 ‘지구’의 모양과 크기, 층상구조, 해양과 빙하를 설명하고 지구를 둘러싼 대기층의 구성요소와 여러 현상을 서술했으며 이러한 지구와 대기를 이루는 기본물질이 어떻게 생성되었는가를 과학사적으로 풀이하고 있다.

웅진문화 / A5신 / 272면 / 4800원

결단의 순간

李昊 지음

정치·경제계를 주소재로 작업을 해온 방송작가 이호씨의 다큐멘터리 政經秘話. 1부 ‘결단의 순간’에서는 올림픽 유치, 자동차산업의 존폐위기, 3선개헌, 국회의사당 건립, 우지파동 등을, 2부 ‘맘모스의 秘錄’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후의 결단을 내리기까지의 대기업 총수들의 고통 등 기업관련 내용을 엮었다. 이밖에도 앞으로 성패가 주목되는 ‘주식회사 코데코에너지’의 설립초기부터 KE-2광구의 실패 원인분석 등 유전개발에 얽힌 내막을 파헤치고 있다.

우석 / A5신 / 326면 / 4200원

푸른 수레

김관숙 지음

84년「월간문학」신인상 수상으로 작품활동

을 시작한 이래 분단문제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온 작가의 장편소설. 6·25 당시 원하지 않은 아이를 낳아 버릴 수밖에 없었던 ‘나무옥’은 이후 사업적 성공과 안락한 가정을 갖게 되나 뜻밖에 생모를 찾는 아들이 나타나 방황하게 되고, 충격을 받은 남편은 은둔생활을 하며 한 모델을 만나 또다른 아이를 낳게 된다. 가족사에 얽힌 인간의 양면성을 바탕으로 분배문제와 이데올로기문제를 자연스럽게 다루고 있다.

도서출판성하 / A5신 / 266면 / 3700원

할아버지의 미소

아리요시 사와코 지음 / 정성호 옮김

현대 일본의 대표적 여류작가로 꼽히는 작가의 출세작으로 1972년 작품이다. 6년간의 자료준비를 거친 작품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한 이 소설은 망령든 노인 ‘시계조’와 간호를 맡은 며느리 ‘다치바나 아키코’의 심리적 갈등을 묘사한 일종의 ‘노인소설’로 결국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삶을 그대로 긍정하고 인간의 존재의미에 대한 새로운 발견에 눈뜨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노인으로 상징되는 현대사회의 소외계층을 무의미한 것으로 단정해버리는 공리적, 타산적 인간관을 고발하고 있다.

도서출판장락 / A5신 / 334면 / 4300원

큰 나무 큰 그늘 아래서

데일 카네기 지음 / 권혁철 옮김

저술가와 화술가로서 명성을 얻은 저자가 20세기의 유명인사들을 상대로 인터뷰하고 자료를 수집해 만든 전기적 성격을 띤 인생론. 아내와의 불화로 말년을 쓸쓸하게 보낸 대문호 톨스토이, 오선지도 사용할 줄 몰랐던 작곡가와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한 결혼하지 않았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30년간 지킨 철강왕, 그리고 재산이라곤 자전거 두대가 전부라 그것으로 신혼여행을 떠났던 가난한 과학자의 이야기 등이 흥미와 감동을 함께 준다.

국일문화사 / A5신 / 222면 / 3800원

